



# 중국 보험회사,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증가

이선주 연구원

연구

■ 최근 온라인 보험 클라우드 플랫폼인 eBaoCloud에 대한 중국 보험회사들의 활용사례가 증가하고 있음.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프라, 애플리케이션, 플랫폼 등을 포함한 IT기반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기술로 서비스 운용 형태와 사업모델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됨. 보험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은 비용 절감과 업무프로세스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이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과 관련하여 정보 보안, 규제 준수, 표준화 등의 장애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■ 최근 온라인 보험 클라우드 플랫폼인 eBaoCloud에 대한 중국 보험회사들의 활용사례가 증가하고 있음.<sup>1)</sup>

- 중국 알리바바는 보험상품이나 앱을 출시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 클라우드 플랫폼인 eBaoCloud를 출시하였음.
- 眾安保險(중안보험)은 동 플랫폼을 활용한 첫 번째 보험회사로 2014년 11월 11일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에 다른 보험회사의 전체 보유계약 수 보다 많은 1억 5천만 건이 넘는 계약을 인수함.
- 中國大地財產保險(중국대지재산보험)은 eBaoCloudTM을 통해 여행자 보험상품을 출시하였으며, 소비자들은 현재 동 사의 위챗공식계정<sup>2)</sup>을 이용해 단지 몇 번의 클릭만으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음.

■ 클라우드 컴퓨팅(cloud computing)<sup>3)</sup>은 인프라, 애플리케이션, 플랫폼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포함한 IT기반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기술임.<sup>4)</sup>

- 클라우드 서비스 운용 형태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용 클라우드와 내부 사용자만

1) 소프트웨어업체인 eBaoTech와 알리바바그룹의 Alibaba cloud가 합작하여 출시한 플랫폼으로, 보험회사가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를 제공함.  
 2) 위챗은 중국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출시한 모바일 메신저로, 기업이 공식계정을 생성하여 모바일 마케팅에 활용함.  
 3)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단어는 최근에 만들어졌으나,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시분할방식(timesharing)과 가상컴퓨터(virtual machine)와 같은 개념들은 존재해왔음.  
 4) Accenture(2010), How Cloud Computing will Transform Insurance.

이용할 수 있는 사설 클라우드로 구분됨.<sup>5)</sup>

- 공용 클라우드는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IT서비스를 제공·관리하여 유연성을 갖는 반면에, 사설 클라우드는 사내에 구축하여 보안에 강점을 지님.

-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모델로는 서버 등의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인프라 서비스(IaaS), 소프트 개발에 필요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(PaaS),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서비스(SaaS)가 있음.<sup>6)</sup>

■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은 IT 비용 절감,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, 보험금 지급 등 보험산업의 전반적인 업무프로세스 효율성을 제고시켜 이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<sup>7)</sup>

- 데이터 통합 및 분석, 모니터링과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및 개발 등의 프로세스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함으로써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.<sup>8)</sup>
- 고객 데이터 통합으로 보험회사는 고객 수요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고 시장 반응에 대응하여 전략을 수정할 수 있음.
- 클라우드 기반 환경에서는 보험모집종사자가 장소에 상관없이 고객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질의응답 및 자문이 실시간으로 가능함에 따라 고객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임.
-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사고현장을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보험금 지급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, 클라우드 내에 모든 리스크 데이터가 집적되어 있으므로 보험사기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임.

■ 보험산업 내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보 보안, 규제 준수, 표준화 등의 장애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- 클라우드 활용 시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이 상시 존재하며,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손해 배상 및 복구 비용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평판 리스크에도 큰 영향을 미침.
- 미국, 유럽 등에서는 클라우드 기반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를 운영 중이며, 해외로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실시하고 있음.
- 다양한 IT 애플리케이션과의 호환성(interoperability)<sup>9)</sup> 부족은 프로세스 효율성, 데이터 접근성 등의 관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의 방해요인이 될 것임. **kiri**

5) 최근 공용 클라우드와 사설 클라우드가 혼용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가 부상하고 있음.

6) IaaS(Infrastructure as a Service), PaaS(Platform as a Service), SaaS(Software as a Service)의 약자임;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(2015), 「금융권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사례와 전망」, 『KB 지식 비타민』, 15-58호.

7) IBM(2013), Cloud computing for insurance.

8) Accenture(2016), Eight percent reduction in insurance carrier costs? Cloud as rainmaker.

9)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변경할 경우 사용자 정보를 안정적으로 다른 제공자에게 이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.